

폐 국균증의 외과적 치료

고신대학교 의학부 흉부외과학교실

이창민 · 조성래 · 천수봉 · 김대연 · 김수현 · 김승명

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*Aspergillus fumigatus*에 의해 발생하는 폐국균증은 알려지성 기관지염, 폐국균증, 침윤성 폐국균증의 세가지 형태가 있으나 폐결핵, 기관지 확장증, 폐암 등과 같이 공동을 형성하는 질환에 병발하는 진균사와 섬유종, 염증세포들로 뭉쳐진 구형물인 폐 국균종만이 외과적 절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.

고신대학교 의학부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수술 치험한 23례의 폐국균증에 대한 치료결과를 분석하였다.

환자는 총 23례로 연령분포는 20세에서부터 59세로 40대에 가장 많았고, 평균연령은 46.2세였다. 성별은 남자가 9명, 여자가 14명으로 여자에 많았으며, 주 증상은 각혈과 혈담이 16례 (69.4%)로 가장 많았고, 기관지 확장증과 흉통, 객담 배출성 해소 등이 있었다.

증상의 발현으로부터 수술까지의 기간은 1개월에서부터 18개월까지로 다양하였다.

병리조직학적 검사상 12명 (52%)에서 다른 폐질환과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, 이중 폐결핵이 9례로 가장 많았다.

병변의 부위는 우측이 9례 (39%), 좌측이 15례 (65%), 그리고 상엽이 16례 (69%), 하엽이 8례 (34%)로 좌 상엽에 발생한 경우가 10례 (43%)로 가장 많았다.

수술 방법은 폐엽 절제술이 15례 (65%)로 가장 많았고 폐 구역 절제술이 3례, 전폐 절제술이 2례, 폐 부분 절제술이 2례, 폐엽 절제술 및 흉막 박피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가 1례 있었다.

수술후 합병증은 다량의 출혈로 인한 재수술이 2례,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경우가 1례였고, 기관지 흉막루와 합병된 농흉이 1례 발생하였으나 재발이나 사망례는 없었다.